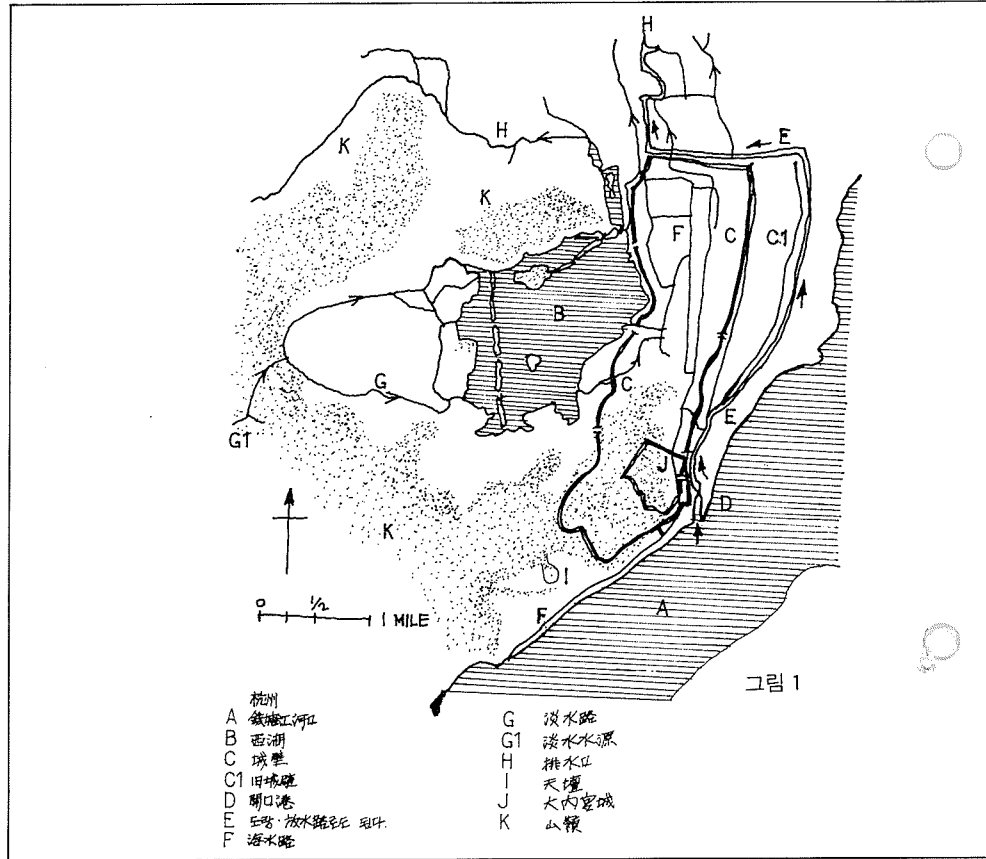


건축과 조경(Ⅲ) (동양의 역사와 조경)



REPORT

Architecture and Landscape

by Oh, Sang Pyung

2. 동양의 역사와 조경

(1) 황하와 만리장성

1) 황토의 구릉(丘陵)

중양아시아 타클라마칸을 비롯한 광막한 사막지대를 휩쓸어가는 강한 계절풍이 황사(黃砂) 현상을 일으키며 수십억년간 모래 먼지를 날려와 거대한 황토의 구릉을 이룬다. 갑숙성 제기평(齊家坪)을 출발하여 협서, 산서, 하남, 허북, 산둥을 관류하는 장장 5,000km가 넘는 장대한 황하의 물줄기가 이 황토층을 녹이며 황해로 흘러들어 황해의 바다까지 누런 색깔로 물들여 놓는다. 이렇게 하여 쌓이고 쌓인 황하유역의 부드러운 황토층은 파기가 쉽고 토양의 밀도가 치밀하여 잘 무너지지 않음으로써 수직으로 깎이어진 강변의 단애에 토굴을 파고 거주하는 선사시대 주거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발아되는 천혜의 조건이 되었다. 벼랑위의 풍화된 토지에는 농경에 알맞은 옥토가 준비되어 B.C 3,000년 경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한족(漢族)들이 중국문화의 역사를 여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북방의 기마민족과 남방의 아민인들까지 한(漢)의 문화권(文化圈)으로 동화시키고 북위 40°~20°에 걸쳐

서는 히말라야 산맥으로 부터 동은 태평양에 연하는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현대성 기후대로 부터 아열대성 기후대에 이르는 광대 무변한 지역에 동양 사상과 철학의 기저를 펼쳐나갈 기초를 마련하였다. 5,000년의 중국문화는 고대 하(夏)와 은(殷)의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전설적인 두 왕조를 거쳐 (三皇:伏羲(복희), 女媧(여화), 神農(신농), 五帝:黃帝(황제), 帝顓頊(제전옥) 帝嚳(제국) 帝堯(제요), 帝舜(제순) B.C 800년경 주왕조(周王朝)에 들어서서 확실한 역사의 기록을 갖게 된다. 이 전설의 삼황오제가 펼친 중국의 정치, 문화, 사회의 전반에 걸친 훌륭한 치적은 후세 왕조들이 통치와 사회 윤리의 본으로 삼게 되었으며 숭한 왕조들의 영고성쇠 중에도 중단됨이 없이 꾸준히 진화·전승되었다. 그 철학과 사상이 서양사의 그리스 시대에 해당하는 B.C 6세기경 춘추시대에는 극지에 이르게 되어 위대한 공자(B.C 552 노나라에서 탄생)의 유교사상이 나타났고 이후 B.C 221년경 전국시대가 끝남으로써 진(秦)의 시(始) 황제에 이르러 마침내 중원(中原)이 통일되었다. 함양(咸陽)에 수도를 정한 시황제는 궁궐을 조영, 광대한 토목, 건축공사를 일으켰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아방궁(阿房宮)은 170km라는 광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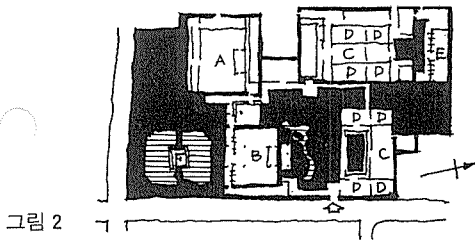


그림 2

杭州의 中規模住宅

- A 大序(大廳)
- B 北序(응접실)
- C 厩廄(厩)
- D 臥房
- E 廚房
- F 池亭
- G 石
- H 院(中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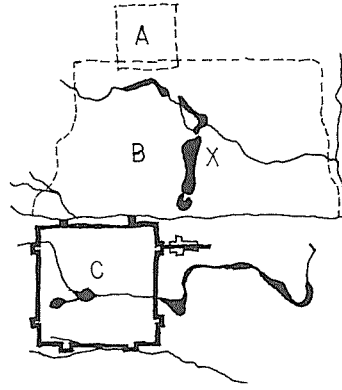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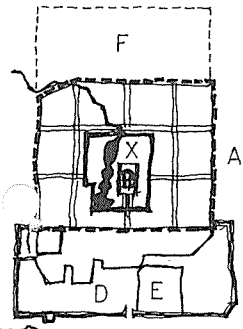


그림 3

北京 元以前

- A 최고의 도시와 위역, BC12세기
- B 林苑과避暑宮, 金(1115~1234年)
- C 遼(907-1114年)의 南京(금의 中都와 비슷하다)
- X 景山(景山)



- 北京 明時代
- A 內城(449년에 元의 都城을 繼承)
 - B 紫禁城
 - D 外城
 - E 天壇
 - F 城 밖의 큰 지구
 - X 景山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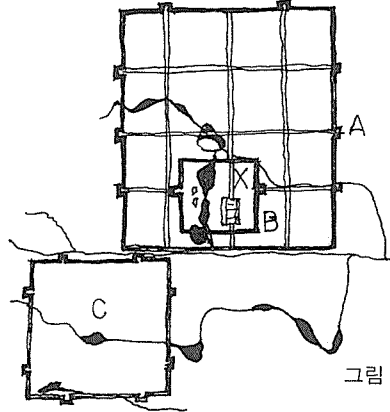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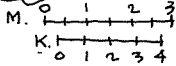


그림 4

北京 元時代

- A 元의 大都(1271~1368年)
- B 皇城
- C 遼의 南京
- X 景山

지역에 걸쳐 이궁(離宮)과 별관(別館)을 짓는 거대한 공사였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궁(宮)과 관(館) 사이에는 연도(輦道)가 누벼졌고 여산(麗山)에 이르는 80여리는 각도(閣道)로 연결되었다. 그 중심을 이루는 아방궁은 동서가 500보 남북이 50장(丈) 되는 건축물로 누상에 만인이 들어 앉을 수 있었고 누하에는 다섯길이나 되는 깃발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 아방궁은 그후 항우의 모반으로 모조리 불타 없어졌으나 만리장성은 보수가 되어 지금까지 그 유명한 역사를 말없이 전해주고 있다. 불과 40년의 통치로 끝난 진(秦) 왕조이지만 오늘의 China라고 하는 중국의 호칭이 진나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한(漢)은 진(秦)의 영토와 문물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통일국가로서 B. C 206년에서 A. D 220년까지 이어졌다. 전성기에는 서역(西域)을 비롯, 남해, 동방, 북변까지 그 위력을 떨쳤으며 수도였던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에는 화려한 궁전과 궁원이 가득차 그 이름다움을 과시하였다. 그중에도 장안의 상림원(上林苑)은 진(秦)의 구원(舊苑)이었던 것을 무제가 건원 3년 B. C 138년 다시 복구한 것이다. 주위는 100수십 km나 되었고 70개소의 이궁(離宮)을

신축하였으며 원내(苑內)는 각지로 부터 헌납받은 3천여종에 달하는 수백만 그루의 꽃 나무를 심고 백수(百獸)를 길러 황제의 사냥터로 삼았다. 한(漢)의 왕조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황제는 중원(中原)에 군림하게 되었고 변방의 이민족들은 한결같이 중원문화에 매혹되었다. 서방세계와의 접촉은 천산북로(天山北路)를 넘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B. C 1세기경 시작되었으며 이 시대의 중국 인구나 문화, 기술수준은 로마제국을 훨씬 능가하였다. 한(漢) 왕조 이전의 중국 사회에는 세습적인 귀족제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주로 소지주(小地主)와 상인으로 형성되는 세력이 사회의 주도 세력을 이루었다. 따라서 가족단위가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이 시대 건축의 풍조는 주택 건축이 건축문화의 기본을 이루고 있어 건물의 종류라든가 또는 종교와 일반 건물사이에는 외관상 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불교 사찰 등에서는 성역(聖域)의 표시로 불탑이 도입되는 정도였다. 건축은 목조골조 구조이고 무거운 기와를 덮은 경사 지붕이 우아하게 이어져 구조를 안정시켜 평형을 이루었으며 갈색은 선명하였으나 자연과 매우 조화롭게 하였다. 음양과 주역 사상으로 천계(天界)는 원이고 지상에서

보는 그 대응은 정사각형으로 여겨지는 고로 도시나 도시내의 궁전은 천측(天測)에 따라 방위를 결정 계획하였으며 거대한 도시복합체는 축선을 중심으로 한 기하학적이고 인심(人心)에 감동을 주도록 건설되었다. 중국사상은 황하(黃河)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과의 동화(同化) 사상이 발달하여 하늘과 땅, 해와 달과 같이 음과 양의 조화에 따라 만물이 생성되는 기운이 생기고 수화금목토(水火金木土)의 오행의 조합에 따라 삼라만상이 모양을 갖추어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고 봄으로써 생명의 원리를 자연의 운행과 음양 오행으로 풀이하고 생각하려는 형이상학적 관념에 근본을 두었다. 인간도 자연 즉 산이나 식물과 같이 "땅"(토양)으로 부터 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정기(精氣)와 영혼은 모든 자연물과 동등하다고 믿었다. 자연계의 정과 영은 모두 연대되어 있으므로 옛 전통을 숭상하고 조상을 숭배하였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사상의 배경하에서 춘추시대의 철학자 공자(孔子)는 고례(古禮)나 사상을 체계화하여 종교라기 보다는 인간행동의 도덕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유교(儒敎)를 확립하여 이를 오늘까지 계승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동양 사상의 중심점이 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A. D 211년 한(漢) 왕조의 종말 이후 천하는 다시 삼분되어 위, 오, 촉 삼국으로 나뉘고 진이 이들을 통일하기 까지 60년이 걸렸으며 그로부터 40년후 동진이 강남으로 옮긴 뒤 110년의 세월이 흘러 남북조 시대가 1세기 반에 걸치는 등 어지러운 왕조의 교체가 진행되었다. 남조(南朝)는 송(宋) 제(齊) 양(梁) 진(陳)의 왕조의 흥망을 기록했고 북조(北朝)는 위, 제, 주의 순으로 계승되어 내려오다 수(隋)에 통일되었으나 수(隋)는 불과 38년만에 멸망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잦은 왕조의 교체는 일단 누구든 왕의 자리에 오르지만 하면 한결같이 권력을 과시하고 환락을 추구하는 속성을 드러내게 하였으며 이로인해 아무리 짧은 왕조라도 예외없이 궁전(宮殿)과 정원(宮苑) 등을 호화롭게 꾸며 사치를 즐겼다.

송(宋)의 문제(文帝)는 A. D 446년 현무호를 중심으로 별원(別苑)을 축조하였고 서진(西晉)은 낙양(洛陽)에 화림원을 조성하여 왕조의 멸망과 함께 황폐되었다가 북위(北魏)의 효문제에 의해 복구되어 장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토루만 남았다.

수(隋)는 장안(長安)을 경도(京都)로 삼는 한편 낙양(洛陽)을 동도(東都)로 정하여 2대 양제(煬帝)는 대업(大業) 원년(605)에 즉위하면서 바로 고간에 현궁을 조영케 하여 예주로 부터 경사에 이르는 800여리 사이에 40여개의 이궁(離宮)을 짓는 한편 남북으로 연결하는 (황하와 양자강) 대운하를 개설하는 등 대역사를 일으켰으나 즉위 14년만에 사살당하고 말았다.

(2) 당(唐) 송(宋) 원(元) 명(明) 대

당은 (618~906) 수(隋)의 뒤를 이어 수도를 장안(長安)에 두고 300년에 이르는 치세를 하는 동안 점차적으로 궁전의 규모를 확장해 나갔는데 그 대표적 이궁(離宮)은 여산(驪山)의 온천궁(溫泉宮)이다. 이궁(離宮)에는 장생전(長生殿)을 비롯하여 많은 전각(殿閣)과 누각이 줄을 이어 세워졌으며 그로 말미암아 산곡(山谷)의 모습이 바뀔 정도였다고 한다. 이때 현종(玄宗)이 총애하던 양귀비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락을 즐겼다 함은 널리 알려진 얘기이다. 또한 서도로 이름높은 구양순이 쓴 「九城宮 醴泉銘」의 구성궁(九城宮)은 전하여지는 바에 의하면 수(隋)시대에 축조되었던 인수궁 터로서 정견(貞觀) 6년 태종(太宗)이 피서길에 그곳을 찾았을 때 감미로운 샘이 솟아 태종이 이를 기특히 여겨 그 샘물에 벼슬을 내렸다 하며 위징이 이를 찬양하는 시문을 짓고 당대의 명필 구양순이 글씨를 써서 비를 세웠다 한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하여 오는 구성궁체(九城宮體) 서도의 교본이다. 구성궁(九城宮)은 장안(長安)에서 서북향 100km 지점에 위치하는 산악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하여 조영한 별궁으로서 산이 아홉겹으로 보인다하여 구성궁(九城宮)이라 했다. 비문에 의하면 산구(山丘)를 의지하여 궁전을 세워 대지(大池)를 파고 물가에 정수(亭榭)를 자리잡게 하였으며 고각(高閣)이 서로 이어져 장랑(長廊)은 사방으로 뻗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장안(長安) 성내의 궁궐에 이어지는 금원(禁苑) 동남에는 대명궁(大明宮)이 있었다고 하며 남북 2.6km 동서 1.6km되는 부지속에 함원전(含元殿) 선정전(宣政殿) 자진전(紫宸殿)을 비롯한 여러 궁전과 누각이 줄을 이었고 태야지(太液池)를 중심으로 하여 화려한 정원이 꾸며졌다고 한다.

송(宋)대(960~1279)는 당이 망한 후 5대를 걸쳐 천하를 평정하여 황하유역인 황토의 평원 변경(汴京)에 경사(京師)를 정하고 궁전과 함께 경림원(瓊林苑)이라는 궁원을 만들고 5대때 부터 내려오는 선춘원(宜春苑)과 옥진원(玉津園) 금명지(金明池)를 개굴(開掘)하였는데 이것을 송(宋)의 사원(四園)이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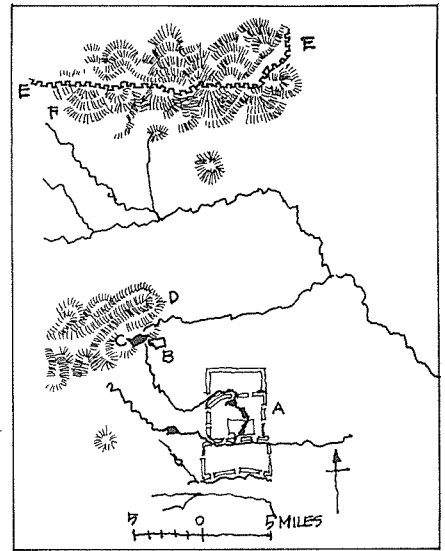
휘종(徽宗: 1111~1117)의 정화연간(政和年間)에는 경림원(瓊林苑)의 동남쪽에 화자강(華紫岡)이라 부르는 높이 수십장되는 인공의 거대한 동산(東山)이 축조되었는데 정상에 금박으로 장식된 취미전(翠微殿)이 자리잡고 좌우에 운곤(雲岸), 층헌(層巘)이란 두 정자가 세워졌으며 흰 대리석으로 다듬어진 곡선형의 계단길이 산정으로 부터 이들을 이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오게 하였으며 연못으로 연결하여 난간을 돌아 계곡의 홍교(紅橋)로 이어졌다. 홍교 아래로는 봉주(鳳舟)를 띄웠고 꽃과 나무는 남방으로부터 수천종을 옮겨심어 그 향기가 진동을 하고 요새말로 향토수종인

모란과 매화와의 아름다움을 서로 겨루게 했다고 하며 산장인 인지전(仁智殿) 좌우에는 거석을 얹혀 좌를 부석신운세봉(敷錫神運歲峰) 우를 옥경독수대평암(玉京獨秀大平岩)이라 명명했다. 휘종(徽宗)은 이에 만족치 못하고 계속하여 양산(良山)을 쌓고(그 돌레가 수십리에 달했다고 한다) 그 줄기에 수산(壽山)을 쌓았으며 수십채의 전과 누각을 세우고 큰 연못을 팠으며 강소(江蘇) 지방으로 부터 운반된 괴암 거석으로 전대미문의 대석가산(大石假山)을 만들었는데 이중 큰 것은 4장(丈)이나 되는 것이 수없이 많았다고 하며 이를 축조하기 위하여 수십만의 인력이 동원되고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어 국민들의 원망이 생겨 마침내는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기에 이르러 되었다. 쇠진해진 국력의 틈을 탄 북방의 기마민족인 금(金)의 침입으로 휘종(徽宗)은 금(金)군에 붙잡혀 북만주의 상경(上京)에 끌려가서 비운을 맞았으며 그 아들 강(康) 왕이 남경(南京)에서 즉위하여 남으로 천도 한 곳이 임안(臨安) 지금의 항주(杭州)인데 이 이후 시대가 곧 남송(南宋: 1127~1279)인 것이다. 항주(杭州)는(그림 1) 구룡의 품에 포옹되어 근 2km에 달하는 전당강(錢塘江) 하구쪽에 물이 간만을 반복하는 경승의 땅에 위치한 땅이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더불어 약 150년에 걸쳐 특히 예술분야가 융성하였으며 다른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쳐 문화가 정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중을 누비는 운하는 해수와 담수가 분리되도록 면밀하게 설계되었으며 해수는 조(潮)의 간만에 맞추어 수문을 조작함에 따라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수심이 얇은 서호(西湖)는 육지로 부터 유입되는 담수가 모여 이루어진 호(湖)이며 A. D 7세기경에 조성되었다. 해수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방조제 같은 독을 쌓아 생긴 담수호인 이 서호(西湖)는 늘 잔잔하고 맑아 항주(杭州)의 주민들로 하여금 평화와 낭만을 만끽하게 하였다. 지금 생각해도 꿈의 도시인것만 같다. 당시 이 도시의 주택 건축은 전형적인 복수 세대를 위한 것이며 각기 개별의 주거동과 뜰을 갖고 있었다(그림 2). 마르코폴로가 이 도시를 방문하여(A. D 1280) 남긴 그 당시 상황의 생생한 기록을 잠깐 소개한다.

(호안에는 고관들의 화려하고도 장대한 대저택이 늘어서 있다. 신상(神像)을 받드는 묘우(廟宇)가 늘어서고 승방(僧坊)에는 상(像)을 봉사(奉祀)하는 많은 승(僧)들이 살고 있다. 호수의 중앙에는 여러개의 섬들이 있으며 그곳에는 믿을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석(貸席)이 있는 색깔도 선명한 건물과 정자가 서 있다. 도시민들이 호화스러운 연회를 베풀고자 할때에는 그중 어느 한 섬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시설물들은 공동 지출로 유지되고 있다. 건물도 시민들이 지은것이 대부분이고 일시에 100조(組)가 모여 놀 때도 있지만 각각의 조(組)에게 객실(個室)이나 정자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여유가 있으며 상호 간섭하는 일이 없다. 호상(湖上)에는 지붕덮인 배와 유람선이 여러척 떠 있다. 길이가 15~20「팻소」되는 폭넓은 평저선(平底船)들이며 10~15인에서 20인이 타고 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오락을 즐기거나 여자가 또는 친구끼리 유흥을 할 때는 이러한 옥형선(屋型船)을 세 낸다. 배는 최선의 상태로 관리되어 있으며 좋은 의자와 탁자들,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유흥을 만끽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기구·물품들이 갖추어져 있다. 객실 위의 평지방이 갑판이 되어 뱃사공이 여기에 서서 긴 노로 호저(湖底)를 밀어서 나아간다. 객실의 내부는 여러가지 화려한 그림이 그려지고 벽면 양쪽에는 여닫이 창문이 있어 탁자에 앉으면 보고 싶은 곳을 볼 수 있고 주변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어 선상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호수는 그 둘레가 도시의 길이에 필적하기 때문에 기술에서 충분히 떨어진 선상에서 도시를 바라보면 그 장관과 미를 아낌없이 즐길 수가 있다. 전각, 묘우, 승방 그리고 가지를 수변에 늘어뜨린 거목이 서 있는 정원을 바라보는 사이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다른 배를 바라보는 것도 흥미진진하다. 어느 배에도 향락에 도취된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의 노동이나 장사가 끝나자마자 나머지 시간을 처첩과 더불어 뱃놀이를 하든지 시중에서 드라이브를 하든지 하며 친구들과 즐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방의 여러 영토를 상실한 남송(南宋)은 옛 시절과 같이 장호한 궁전을 조영할만한

국력은 없었으나 항주(杭州)는 서호(西湖)를 비롯한 자연의 산수가 워낙 아름답고 기후가 온화하여 갖가지 초목이 번성했던 까닭에 궁궐이 아닌 백성의 일반 저택에서도 정원을 가꾸는 일이 매우 유행하였고 요즈음 표현으로 조경이나 수목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 성업했으며 꽃시장도 있었다고 한다. 거슬러 보면 송(宋)대의 화북지방을 점령한 북부 여진족인 금(金)은 북경(北京)을 경사(京師)로 삼고 한(漢)의 문화에 동화되어 궁전을 건설하고 금원을 창시하여 태액지(太液池)를 만들어 경화도(瓊華島)를 쌓아 뒤의 원(元) 명(明) 청(淸) 3대 왕조의 궁원 구실을 한 정원을 축조해 놓았다. 원(元)대에서는 이곳을 대도(大都)라고 개칭하고 계속 수도로 삼았으며 정기스칸의 후예들이 이들이 그 강력한 국력을 과시하면서 강남으로 부터 태호석(太湖石)을 실어 오는 한편 서산(西山) 망산(房山)의 돌을 옮겨 금원(禁苑) 내 도처에 석가산(石假山)을 쌓고 동굴을 만들어 놓았다. 이 금원(禁苑)은 명(明) 청(淸)대를 거쳐 현재도 북경공원이란 이름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금(金) 원(元)대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1369년부터 시작되는 명(明)대에는 송(宋) 금(金) 원(元)대에 이룩된 정원축조의 기술들이 여러가지의 서적으로 간행되었는데 문진형(文震亨: 1588~1644)의 「長物志」 12권, 허성(許成)의 「園治」 3권 등이 전해오고 있고 그의 명(明)대의 조경에 관한 문헌도 많았으나 축조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 경치를 찬미한 문학작품 시 등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문진형의 「長物志」는 1권부터 3권까지는 실로(室廬) 화목(花木) 수석(水石) 등에 관한 기술이었고 허성의 「園治」는 흥조론(興造論) 부터 시작되어 설계자가 시공자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 원내의 배치나 차경(借景)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원설(園說)로서 모름지기 임원(林園)을 만들기 위해서는 촌곽(村郭)의 구별없이 토지는 편와(偏隈)한 곳이 탁월하다는 말로 시작하여 모든 산수나 죽수(竹樹)의 가경을 이용해야 함을 논한 다음 상지(相地: 토지의 외모) 입묘(立墓: 건물의 기초) 옥물(屋物) 장절(裝折: 조작 건구)의 4분으로 나누어 설명해 놓았다. 특히 중국정원은 대사인간



- A 북경
- B 颐和园 圆明园
- C 颐和园 颐和园
- D 西山
- E 万里 长城
- F 颐和园 十三陵

그림 6 두개의 피서관과 그 주변

(臺謝麟閣) 따위를 주첨경물(主添景物)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원내의 가옥구조는 자연과 합치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門樓, 堂, 池, 室, 房, 塔, 樓, 臺, 閣, 亭, 軒, 卷, 廳, 廊, 五架梁, 七架梁, 九架梁, 草架, 重椽, 磨角 따위로 나누어 건축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건축에 대한 장식인데 (대체로 조각이라는 것은 건축의 외부장식보다 어렵다. 특히 원옥(園屋)은 기택과는 달리 곡절(曲折)에 묘미가 있어야 하며 단정해서는 안된다. 단 단정한 가운데서도 곡절(曲折)이 있어야 하고 곡절(曲折) 하면서도 단정한 것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서로 어울려서 치중(錯綜)하는데 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여 屏門, 仰塵, 床隔, 風窓 4가지로 나누어 많은 그림을 곁들여 놓았다. 제 2 권은 난간이다. 난간도 장절(裝折)의 일부이므로 제 1 권에 포함시켜야 하나 100여가지의 방식이 있으므로 2 권으로 묶어 놓았다. 제 3 권은 門窓, 牆垣, 鋪地, 綴山, 選石, 借景의 6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차경(借景)에 대한 부분으로 정원을 축조하는데 있어서는 외부의 풍경을 이용하여 이것을 정원의 일부분으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였고 주거로 삼을 지리와 자연경관과의 관계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서술하고

차경(借景) 수법에는 원경을 이용하는 일차(逸借) 근경을 이용하는 인차(隣借) 높은 산악을 이용하는 양차(仰借) 낮은 곳의 풍경을 부감하는 부차(附借)의 4가지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3) 청(淸)대의 조경

1588년 누루하치가 건주(建州)에서 삼위(三衛)를 통합하고 1616년 후금(後金) 국을 세운 이래 1636년 국호를 청(淸)으로 바꾸고 청태종이 자신을 황제라 칭함으로써 비롯된 청나라는 명(明)의 황궁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북경을 수도로 삼았다. 북경성(北京城)은 주위가 23km나 되었으며 이 가운데 중앙에 자리잡은 황성(皇城)의 주위가 10km나 되었고 다시 이 속에 자금성(紫禁城)이 축조되어 있었는데 주위가 6km여, 동서 750m, 남북 1km에 이르렀다. 자금성에는 황금색 기와를 인 궁전과 누각이 남향으로 즐비하게 서 있었고 자금성은 후반부가 후궁으로 되어 있어 홍장(紅牆)으로 전조(前朝) 부분과 구분되어 있고 각궁은 각기 독립된 건물로서 그 사이는 전석(傳石)을 간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각 궁전의 안뜰에는 좌우에 노백(老柏) 노송(老松)이 심어졌으며 뜰에는 계절따라 분(盆)에 화초를 기꾸어 놓았다. 다만 자금성 북문인 신무문(神武門) 안쪽의 순정문(順貞門)과 곤녕궁(坤寧宮) 사이를 어화원(御花園)으로 꾸몄으며 순정문 동쪽과 외동문에 있는 영수궁(寧壽宮) 뒤 권근제(倦勤齋)가 있는 서쪽, 북문인 신무문 등 부근에는 풍수설에 따라 인조산인 각종 크기와 형태의 석가산(石假山)을 축조하고 석가산에 곁들여 정산 또는 적당한 장소에 수십체의 각종 누각과 정자를 지어 호화로운 궁원을 꾸몄기 때문에 건축과 석가산의 묘미는 최고로 발휘되어 있기는 하나 경쾌한 자연미는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 황궁(皇宮)의 외원(外苑)으로서 서원(西苑)은 금(金) 원(元) 명(明) 이래 금원(禁苑)으로 쓰였던 자리로서 남북 2.3km의 가늘고 굴곡된 태액지(太液池)라는 호수가 있다. 물이 깨끗하고 맑으며 굴곡에 따라 남해, 중해, 북해의 3부분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는데 북해라 불리는 곳은 북으로 뻗어 자금성의 후문인 신무문 앞을 동서로 가로 지르는 대로와 마주치는 부분에 큰 석교(石橋)를



그림 7 원명원내의 한 경관

설치하여 이 석교의 남쪽을 증해라 하였으며 계속 남쪽으로 내려감에 따라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져 큰 수면을 이루는 곳에 작은 다리하나를 설치하여 그 남쪽을 남해라 하였다. 남해 입구는 자금성의 정문인 천안문(天安門) 앞을 동서로 가르는 서장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이중 남해는 수면이 가장 큰 호수로서 호변에다 크고 작은 섬을 만들었고 호수의 남쪽은 일체 건물을 세우지 않고 태호석(太湖石)으로 석가산을 만들어 해변가의 거암의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물가에는 돌을 얹혀 그 위에 서면 바로 발밑에서 물결이 출렁이게 하는 등 온갖 조경적 기법을 다 동원하여 묘한 분위기를 창출하였다. 한편 청조(淸朝)의 이궁(離宮) 으로서는 북경의 西郊, 暢春園, 圓明園에서 1km 떨어진 만수산 이궁, 열하의 피서산장 등이 각기 그 특징을 갖는 이궁들이다. 이중 특히 원명원(圓明園)은 건륭황제(乾隆皇帝)가 양주, 남경, 수주, 항주 등 강남의 명승지를 6 차례에 걸쳐 돌아보고 50여년의 세월을 걸쳐 증축을 거듭한 이궁으로 궁전, 누각, 정자 등이 서 있으며 불사(佛寺) 도관(道觀) 대극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건축물과 호수, 계곡, 수림 등 수백만평에 달하는 토지를 사용하였다. 특히 1747년 이탈리아, 프랑스의 선교사들을 시켜 베르사이유를

모방한 르네상스풍의 정원을 꾸미게 함으로써 동양 최초의 서양식 정원 양식이 도입되었으나 1860년 영불 연합군의 북경 공략시 불타버리는 비운을 맞았다. 만수산 이궁은 본래 원정사(圓靜寺)의 유지(遺址)에 대기람인 불광각(佛光閣)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었고 궁전은 부수적인 것이었으나 서태후에 의해 궁전이 창건된 뒤부터 이궁(離宮)으로도 사용되었다. 특히 곤명호라고 이름붙인 이곳의 호수에는 인공섬을 12개 만들어 신선사상(도교적 사상)과 음양오행의 주역사상에 근거한 무산 12도를 표현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경수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외도 백성들의 누각 정자 등은 선비들의 일상생활화된 문학과(주로 시) 주연을 베푸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4) 중국의 풍경식(風景式) 조경

중국은 위낙 국토가 방대하여 각지에 산재하여 있는 궁원과 유명한 정원들이 수천, 수만에 이르고 있으나 유럽과는 달리 그 궁전과 누각들이 거의 다 목조로 건조되었던 관계로 5 천년 역사상 끝없는 왕조의 명멸과 계속되는 전쟁으로 불타고 파괴되어 흔적조차 찾을 길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의 조경을 그 성격으로

구분해 볼 때 대략 4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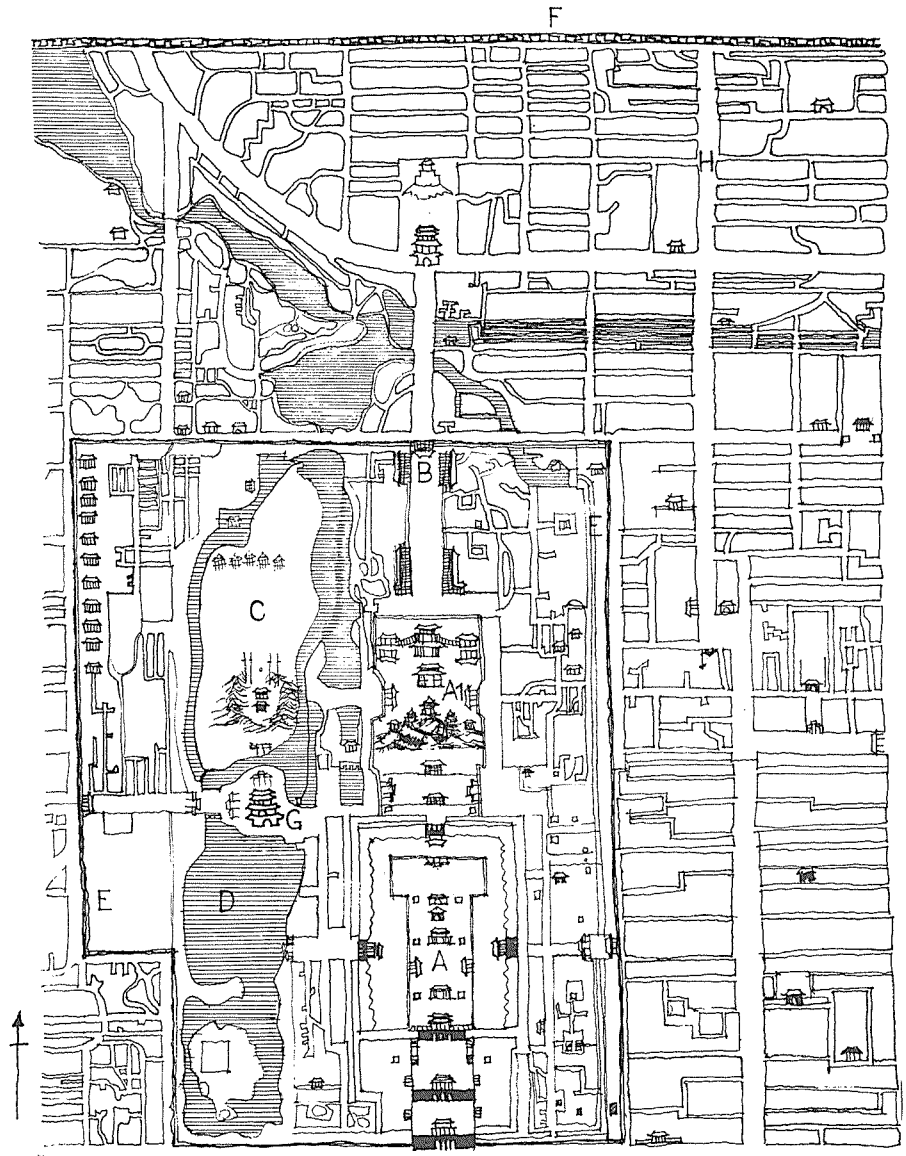
① 왕후들의 궁전 또는 아궁으로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골라 그 일부에 인공을 가하여 석가산(石假山)을 쌓는 등 암석을 배치하고 수목을 심어 심산유곡 같은 느낌을 조성하는 한편 맑은 물을 끌어들이 호수나 연못을 만들고 장려한 누각과 궁전, 화려한 정자, 교량 등을 설치하며 방대한 임원(林園)에는 사슴 등 야생동물을 사육하여 사냥 터로 삼는 등 자연과 인공의미를 겸비한 대궁원을 꾸몄음을 볼 수 있다.

② 특수 귀족들이나 부호들이 자연의 경관을 즐기기 위해 관직에 있는 자가 공금을 내거나 부호들의 추렴으로 수려한 경승지에 누각 정자를 짓고 주위에 수석이나 수목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배후의 자연을 차경(借景)으로한 귀족 세도가들의 전유물인 일종의 원시적인 공원 비슷한 성격의 것이 있었으며 예를 들면 양주(揚州)의 평산당(平山堂) 태산(泰山) 노산(廬山) 황산(黃山) 아미산(峨眉山) 등과 같은 것이다.

③ 세번째로는 제한된 도시 즉 성내의 주거구역에 부속되는 정원으로서 높은 관료나 부호들의 전유물로 한정된 성내의 평지에 인공으로 신수의 정서를 조성한 것인데 태호석(太湖石)을 주요재료로 삼아 석가산을 쌓고 연못과 정자를 설치하고 진귀한 수목들을 곁들였다.

④ 네번째로는 일반 주택 건물 사이에 주로 만들어졌던 소위 중정(中庭)으로서 이 지역은 대체로 전석(轉石) 부석(薄石)으로 포장되었으며 한(漢)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수법으로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통용되었다. 특히 강남지방에서는 여러가지 옥석 등으로 무늬를 그려 넣는 등 섬세한 꾸밈이 나타났으며 몇 그루의 수목이나 주로 분에 심는 꽃나무의 배치로 정원의 운치를 즐기고자 하였던 소시민의 의도가 역력한 곳이었다.

이와같은 중국조경의 특색을 서양 조경과 비교하면 서양에 있어서의 두드러지는 고대→중세→르네상스→영국풍경식→근대미국자유주의사상으로 발전되는 뚜렷한 역사적 단계성은 발견할 수 없고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동양사상적 배경에 따라 꾸준히 같은 스타일로 진화되어온 과정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 경관요소를 주 구성요소로



北京의 황궁

- A. 紫禁城
- A1. 紫禁城 後宮
- B. 神武門
- C. 禁苑
- D. 太液池
- E. 內城
- F. 外城
- G. 天安門
- H. 人民의 거리

그림 8 북경의 황궁

삼고 여기에 인공의 화려한 건축물을 도입시켜 강력한 대조(Contrast)를 주는 기법은 시대에 따라 모양은 약간 달랐어도 그 골격은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중국적 골격은 곧 이것이 동양조경의 골격이며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다음호는 일본조경)